



장시간 해상작업과 고강도 노동으로 어선업계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사진은 외국인 선원들이 조업 전 육상에서 그물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한라일보 DB

“아무도 배 안타려 해… 너무 힘들다”

기 획 없어서도, 보여서도 안되는… <3> 선원 쟁탈전

코로나 시국 선원 확보 악화로… 인력 관리도 힘들어
고된 해상 노동에 만성적 일손 부족… 외국인도 기피
업계 “외국인들 몸값 담합·무단이탈까지 만연” 호소

“#‘요새 젊은 애들이 배 타캔 합니까? 기자님이른 썰꺼?’”

어업은 산업 특성상 해상에서 장기간 작업이 이뤄지는 데다 노동강도가 높은 대표적인 3D업종이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기피할 만큼의 노동량에 임금도 높지 않은 탓에 어민들에게 만성적 일손 부족은 낮은 일이 아니다.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내 30t 급 선박 2척을 보유한 선주 A씨는 “20년 전 처음 배를 몰 때만 해도 외국인 선원이라는 게 없었다”며 “약 10~12년 전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우리도 외국인 선원 13명과 함께 일하고 있다. 외국인 없이는 어업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다. 불법도 천지”라고 말했다.

A씨의 말처럼 수산업계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고용허가제가 시작된 2004년 이후 본격화했다. 도내 6개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집계(추정)된 연근해 어업 외국인 선원 수는 2011년 643명, 2013년 838명 이

후 2014년 1062명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이어 2017년 1278명, 2019년 1647명으로 지속 증가했으며 2020년엔 1592명, 지난해는 1475명으로 집계됐다.

내국인 근로자는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선불금을 요구하는 관행도 있고, 인건비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 외국인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수치를 더하면 수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외국인 체감 수는 집계된 수치보다 훨씬 높다.

외국인 일손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선원 수급과 관리의 순탄치 않다. 어업은 조업 시기 별로 계절성을 띠지만 필요한 시기에 선원이 공급되지 않는 데다, 고강도 노동 탓에 양식업·제조업 등 타 사업장으로서의 이탈률도 높다. 외국인 선원 쿼터량 자체가 한정적인 탓도 있다. 도내 6개 수협에 배정된 연도별 1~3차 인력 쿼터(선원취업비자(E-10))를 보면, 모슬포와 추자도 수협의 경우 1명도 배정받지 못하

거나 3~6명에 불과한 해가 많았다. 규모가 큰 한림수협과 서귀포수협인 경우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80명대까지 배정받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코로나19 ‘빨간불’… ‘몸값 담합, 이탈까지’ 어민 ‘이중고’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외국인 노동력에 기대 연명해 오던 사업장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수협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해 고용허가제로 입국이 예정된 어업 분야 배정 인원 가운데 입국자는 10% 미만에 그쳤다. 지난 5월 한림항 인근에서 만난 선주 B씨는 “2019년에 고용센터와 수협에 신청했던 선원들이 올해 들어서야 입국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속되는 인력난에 조업을 줄이거나 아예 출항을 못하는 어민들도 늘었다고 선주들은 전했다. 선박은 최소한의 기준 인원이 없으면 조업 자체가 힘든 데다, 겨우 인원을 채웠지만 코로나19에 감염돼 선장·선원을 포함한 전 인원이 격리되면서 출항을 못한 일도 다반사였다는 것이다. B씨는 “일손이 없는 만큼 노동 강도가 높아지면서 경력자들도 배를 안 타려 한다”며 “배 운항을 하는 선장까지 조업에 투입되면서 선박 충돌사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도 부담이다. B씨는 “외국인 선원 1명 당 월급, 퇴직금, 숙식 등을 모두 합치면 4300만원 가량 지출한다”며 “4대 보험 등을 합치면 한 해에 1억 가까이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손이 귀해지자 외국인 선원 사이에선 서로 인건비 액수를 공유하고, 그에 맞춰 각자 사업장에 급여 상상을 요구하는 ‘몸값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고 어민들은 전했다.

불법 인력중개소 브로커의 개입도 있다. 늘어난 임금 부담은 어민들의 몫이다. 선주 C씨(제주시 한림읍·40t 급)는 “미등록 외국인의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합법적인 경로로 취업한 선원들이 자괴감을 가지게 되면서 기존 선원들의 인건비도 상승했다”며 “우리는 바다를 오갈 때 해양경찰서에 출·입항 신고를 하는 등의 이유로 일용직을 쓰기도 어렵고,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여서 등록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등록 외국인 선원에 대해 (당국이) 적발도 잘 하지 않는 데다,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래서 선주들이 벌금 몇 백만원 내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미등록 선원을 많이 쓴다”며 “정식 고용하는 선주 입장에서 엄청난 피해”라고 토로했다.

강다혜기자

경찰장봉으로 ‘툭’ 치니 흥기가 ‘툭’

주점에서 흥기 난동 신고
경찰 출동 8분 만에 제압

지난해 발생한 ‘인천 증간소음 흥기난동 사건’ 등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흥기를 든 50대를 완벽하게 제압한 제주경찰의 모습이 포착됐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시40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의 한 주점에서 “술남이 흥기를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이 호감 표현을 거부한 것에 격분해 A(54)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흥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서부경찰서 한림파출소 순찰2팀(팀장 박정현 경감)은 방검복과 삼단봉, 테이저건 등 장비를 착용한 뒤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순찰2팀은 피해자 및 행인을 안전한 장소로 피신케 한 뒤 A씨 제압에 나섰다. 박 경감이 경찰장봉으로 직접 제압에 나섰다 나머지 경찰관들은 도주로 차단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했다. 이날 오전 1시43분쯤 박 경감이 휘두른 경찰장봉에 저항 의지를 포기한 A씨가 스스로 흥기를 내려 놓으면서 난동은 신고 8분 만에 종료됐다.

현재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송은범기자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28일 대법 판결

제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는 28일 살인의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징역 30년, 징역 27년을 선고 받은 백광석(49)과 김시남(47)의 상고심 선고를 예고했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 소재 주택에 침입해 중학생 A(당시

16세)군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백씨와 김씨는 살인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백씨는 “직접적으로 A군을 죽인 범인은 김시남”이라고 진술한 반면 김씨는 “미필적 고의는 있지만 실제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백광석이 했다”고 맞선 것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새싹보리 거짓광고 벌금형

제주산 새싹보리를 가파도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

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거짓광고해 약 13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B씨는 A씨가 원산지를 속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광객 등에게 해당 새싹보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약 26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송은범기자

성산항 어선 방화범 송치

성산항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현주선박방화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제주지방법원은 도주 우러 등을 이

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새벽 성산 선적 연승어선 3척(29t·39t·47t)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어선 3척과 소방차 1대까지 소실돼 소방서 추산 29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송은범기자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장성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달팽이추출물 핵심 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릭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고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미를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생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2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